

공손표현과 아부의 문화적 차이

윤재학
(경희대학교)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최근 25여년에 걸친 비약적인 민주화의 진행은 괄목할 만하다. 정부민원실, 경찰, 공무원, 교사 등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적 관행이 상당부분 급속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2003년에서 2008년 초에 이르는 참여정부 시기의 다소 진보적 행정부를 경험한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갈증이 대폭 해소되었으며 일부 국민들은 민주화 피로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과잉상태인 것으로 규정하는 보수층이 결집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이들에게는 민주화는 충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비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 이후에 권위주의적이며 상당한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며, 5년 후에는 40년 전의 독재적인 유신정권의 향수를 달래주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언어와 사회는 유리될 수 없으며, 사회변화는 상당부분 언어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언어에 나타나는 현상의 분석은 사회구조를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과 민주화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변화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언어현상의 분석은 사회변화가 언어에 실시간으로

즉각 반영되지는 않고 다소 후행하는 특징이 존재하므로 분명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¹⁾ 그러나 사회현상의 언어적 투영에 내재되는 후행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사회는 상호관계에서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측면이 광범위하고 공고히 뿌리박혀 있는 상황을 공손표현과 아부에 대한 한국어와 미국영어에 나타나는 차이를 바탕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호칭사용의 격률과 존대법, 권력과 유대관계 체계, 아부에 대한 관점 등 언어적 측면과 팀 관행, 선물문화 등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상급자 중심주의 및 상급자 친화적인 측면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²⁾

II. 공손 현상

1. Brown & Levinson(1987)의 공손법 이론

Brown & Levinson(1987)에 따르면 사회적 요인이 언어구조에 가장 가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경어법이며, 경어법은 공손법 이론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청자의 체면(유지)욕구(face-want)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Brown & Levinson(1987: 61)의 공손법 이론의 중추적 개념으로 제시된 체면(face)은 ‘각각의 구성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인 자신의 이미지’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존심과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학자 Goffman(1967)의 의미를 차용한 것이지만 일상표현으로서 ‘체면을 구기다’(to lose face), ‘체면을 살리다’(to save face) 등의 표현에 나타나는 ‘체

1) 언어반영의 후행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호칭과 존대어의 경우, 미국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환경이 있기도 하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호칭의 구분이 엄격했던 1960년대 이후 이름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이 미국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부모, 조부모에게 반말하는 자녀와 손주의 등장은 최근 20년 사이의 변화이다.

2) 서열관계는 연령, 성별, 직장내 관계, 직업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상황에 따라 윗사람, 아랫사람, 상사, 부하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상급자, 하급자로 지칭하도록 한다.

면'(face)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론적 개념으로서 체면은 두 가지 욕구(face-want)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부정적/소극적 체면, negative face)와 남에게 인정받고 동일한 내집단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긍정적/적극적 체면, positive face)가 있다. 이러한 욕구, 특히 부정적 체면은 인간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는 충고나 부탁 등의 화행에 의해 침해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잠재적인 체면 침해 행위(FTA, face threatening act)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가 공손법인데, 이는 결국 청자의 체면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공손법의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Brown & Levinson 1987:132-187).

(1) 부정적 공손전략:

- a. 간접표현: I'm looking for a comb.
- b. 의문문 사용: Won't you open the door?
- c. 비판적 예측: You don't have any manila envelopes, do you by any chance?
- d. 침해 최소화: I just dropped by for a minute to ask you if you ...
- e. 사과, 경어법, 호칭: Excuse me, sir, but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특별히 본 절에서는 미국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 경어법과 호칭을 중심으로 논의에 초점을 맞춰 비교 설명하기로 한다.

2. 긍정적 공손성

한국과 미국문화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긍정적 공손성(positive politeness)의 개념이다. '공손하다', '예의바르다' 등의 평가는 부정적 공손성(negative politeness)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의 체면(face)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전략도 부정적 공손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상대에게 친밀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긍정적 공손전략의 예로서 (2)가 제시된다 (Brown & Levinson

1987:104-124):

(2) 긍정적 공손전략:

- a. 과장하기: What a fantastic garden you have!
- b. 내집단 표시 사용: Come here, buddy.
- c. 가벼운 인사와 이야기 (small talk)
- d. 농담 사용: OK if I tackle those cookies now?

이와 같은 긍정적 공손성에 대한 인식은 지켜야할 예의 범절로 한국문화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혹은 응접실에 홀로 남겨진 두 사람의 경우 미국문화에서는 지인이 아니더라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바른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범절로서 요구되고 이를 무시한 경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한국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뿐 대화를 개시하지 않는 상대를 예의에 어긋났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묵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기도 한다. 특히 면식이 없는 남녀 사이일 경우 말을 건네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가벼운 사람 혹은 싱거운 사람으로 오해될 위험마저 염존하는 현실이다.

위의 상황에서 대화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서열에 차이가 있다면 상급자의 몫이고, 동등한 서열이라면 두 사람 중 아무나 대화를 시작해 침묵의 어색함을 깨도록 되어 있다. 상대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FTA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본인에게 위협과 부담이 되는 행위이다. 미국문화는 상급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인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상급자는 이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상급자 우선적 성향이라고 하겠다.

미국문화와 달리 한국 사회의 인사예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급자 우선 원칙이 발견된다.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시작하도록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사성 없다’거나 ‘버릇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쉽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례를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응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3. 권력과 유대관계

언어에 반영되는 또 하나의 사회적 관계로는 개인간의 사회적 거리와 친밀도, 즉 권력(power)과 유대관계(solidarity) 사이의 조합이다. Brown & Gilman(1960)은 일찍이 독일어 *du*, *Sie*, 프랑스어 *tu*, *vous* 등 다수의 서유럽어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청자에 대한 지칭 이외에 화자와 청자 상호간의 권력과 유대감의 차이에 따라 적절한 대명사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여기에서 권력 혹은 권위(power)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사회적 거리감, 생소함, 공경 등을 나타내는 반면 유대감(solidarity)은 가까움, 익숙함, 공통된 경험, 공유하는 친밀감 등을 표시한다. 이에 따라 처음 만나는 높은 지위의 상대에게는 *Sie*, *vous*를 사용하고, 익숙한 친구에게는 *du*, *tu*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틴어, 스페인어 등에서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고 어원적으로도 관련이 있어 유대감을 나타내는 T(*tu*, *du*), 권력을 나타내는 V(*vous*, *Sie*)로 나누어 이를 T/V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영어에서도 *thou*와 *you*(<*ye*)로 구분되었으나 현대 영어에서는 *you*로 통합되어 대명사 사용으로 T/V 관계를 나타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효과는 호칭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얻게 된다: 즉, 호칭에 있어서 *John*과 같이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T)와 Dr. Roberts와 같이 직함에 성을 붙여 부르는 경우(V)로 구별하는 방식이다 (Hudson 2001).

Hijirida & Sohn(1983), Hwang(1991)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간관계에서 권력(power)에 둔감하고 대신 유대감(solidarity)과 친밀성(intimacy)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인은 권력에 민감한 것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사회에서 호칭은 친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함+성’(Dr. Roberts)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친밀한 형태인 이름(John)으로 바뀐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알게 된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정착된 호칭이 친밀도의 향상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어릴적 만난 동급생은 평생 ‘철수’라고 부르고 성인이 되어 이루어진 관계이면 ‘김철수씨’, ‘김교수’, ‘김사장님’ 등으로 굳어진다.

이는 미국인 사회에서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면 아래와 (3)과 같이 상, 하급

자 동등하게 이름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직함을 활용한 호칭 등에서 발생하는 권력을 포기하고 친밀성과 유대감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된다.

(3) 상급자/하급자: Please call me John.

이에 반해 한국 문화에서는 아래 (4)와 같이 하급자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친밀성을 얻고자 한다. 나이나 직급에서 일정 수준의 차이가 나는 상급자는 미국문화와 달리 예문 (5)처럼 자신이 권력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하급자: 말씀 낮추십시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5) 상급자: #우리 말 놓자. 친구하자.

이에 따라 상급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문화에서는 권력대신 친밀성을 얻는 반면 한국 상황에서는 권력과 친밀성을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반대로 하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사회에서는 권력과 친밀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나,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을 포기하고 친밀성을 획득하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³⁾ 이 부분에서도 한국 사회는 상급자 중심적 관계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4. 존대법과 호칭의 역동성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인 상호관계에 돌입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로 서열에 기초한 관계설정이 중요한 전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동반하지만 연령, 선후배, 직위 등을 종합하여 서열이 결정되어야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관계설정의 여부는 존대법과 호칭의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관계 참여자가 불만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서열관계는 다양한

3) 권력에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는 변화는 [- power]에서 [o power] 상태로의 변화이므로 권력의 상대적 획득이라 할 수 있다.

층위가 존재하지만 호칭 또한 다양한 단계로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수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주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관계설정과 이에 따른 존대법과 호칭의 수준은 많은 경우 당사자들의 명시적, 비명시적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존대법과 호칭에 따라 전제되는 사회적인 무언의 합의와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존대법과 호칭의 수준이 결정되면 대화참여자는 이에 따라 상호간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사회적 요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존대법과 호칭이 사회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연령차이라 하더라도 관계설정이 반말로 정착된 관계와 높임말 관계인 경우 상대적인 발언권, 권력 등에서 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같은 수준의 친밀도를 가진 동일한 조직의 구성원 A(53세), B(51세), C(51세)의 관계에서 A가 B에게 낮은 호칭과 반말을 사용하고 (B는 A에게 높은 호칭과 존댓말 사용), A와 C는 서로에게 높은 호칭과 존댓말을 사용하는 관계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세 사람 사이의 발언권 및 권력에서 B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예컨대 한 사람 몫의 잔심부름 업무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하급자로 정착된 B의 술선수범이 요구된다. 호칭과 존대법은 상호관계에서 상호간의 서열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지로서 작용하고, 이 서열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계설정의 단계에서 대화참여자는 만족스러운 호칭과 존대법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권력투쟁의 양상이 전개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관계는 동급생 사이에서는 이름에 반말을 사용하고, 상급생에게는 ‘선배님’ 호칭에 존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갈등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학생 이상의 성인 간의 관계에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철수씨’, ‘김철수씨’, ‘김박사(님)’ 등의 호칭과 높임말을 사용하다가 지속적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다른 호칭과 존대법으로 정착되거나 초기의 호칭으로 굳어진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권력과 친밀도 체계에 따라 (4)와 같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말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관계가 정립된다.

(4) 하급자: 말씀 낮추십시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이나 서열의 차이가 큰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도 일정수준까지 호칭과 존대수준을 낮추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하급자가 반말을 해도 좋다는 위의 (4)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2년의 상급자가 집요하게 반말로 대하는 경우, 하급자에게는 다음 세 가지 중 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i) 소극적으로 받아 들이 거나; (ii) 관계를 거부하여 회피하거나; (iii) 명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다. 명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래 (6)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말 때문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6) 왜 반말 하세요 (ㅈㅂ)?

위에 같은 수정요구 과정 이후의 충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한 반말에 대한 일전불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 관계를 수용하거나, 부당한 관계를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와 같은 허가를 얻지 않은 반말 사용으로 우위적 관계설정을 도모하는 직업군으로 자주 소개되는 분야가 환자에게 반말하는 의사, 피의자에게 막말 하는 검사, 수습시절에 취재처인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무조건 반말로 시작하라고 훈련받는 기자들의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단 낮은 호칭과 반말의 관계가 정착되면 이에 따라 얻게 되는 관계적인 우위성을 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호칭과 존대법이 가지는 사회적 권력을 증명해 준다.

5. 자발적 복종심

미국사회에서는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자신들의 관계를 “friends”라고 정의하며 스스럼 없이 대등한 관계에서 우정을 나누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엄격한 선후배 관계로 정립되어 아예 놀이를 공유하지 않거나, 놀이에 참여하더라도 동등한 놀이 참여자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만큼 서열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이며, 서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나이이다. 특히 비공식적인 조직 내에서는 나이가 서열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로 작용한다. 재수생과 현역이 동급생이 되는 경우 동일 학번이라는 서열이 일 년의 생물학적 차이에 우선이지만, 삼수생의 경우 이 년의 차이는 쉽게 무시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이긴 하나 군대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차이로 서열이 정해지고, 극단적인 경우 훈련소에서는 일 주일 차이로 존대말과 반말이 결정된다. 이처럼 나이는 대단한 권력으로 존재하여 언쟁이나 싸움에서 아래 (7)과 같이 나이가 중요한 무기로 등장하기도 한다.

- (7) a. 너 나이가 몇 살이냐?
b.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집단인 학교, 군대 등에서 첨예한 서열의식이 존재하다가, 사회인으로 등장할 때, 같은 직장이 아니라면 서열의식은 다소 희석되고 일정한 친밀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서로 존대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상대의 직위를 활용하여 ‘김사장님’, ‘박부장님’ 등으로 호칭하며 서로 존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언니’, ‘동생’의 서열이 상대적으로 빨리 정착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나이의 중요성은 성별라인을 넘는 순간 매우 다른 양상으로 작용한다. 비공식적 조직에서는 남녀 간의 호칭은 특별히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남성들 사이의 호칭과 같은 형태를 띤다. 그러나 공식적인 관계가 성립되면 나이가 아닌 남녀간의 전통적인 서열이 고개를 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상 아내는 남편에게 존대하고, 남편은 선택적으로 존대하거나 반말을 하기도 한다. 특히 흥미로운 현상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관계가 발전하는 경우에 이전에는 나이에 의존했던 관계가 나이를 무시한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상의 여자친구가 연하의 남자애인에게 ‘오빠’로 부르며 존대말을 쓰고 남자애인은 여자친구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답습하여 최근에는 21세기 태생인 여중생이 남자친구를 ‘오빠’로 부르는 소위 ‘자발적 복종심’의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들은 ‘오빠’로 부르는

것을 애인관계 정립의 징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1세기의 신세대들이 19세기의 봉건적 관습을 흔쾌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단면이다.

6. 비언어적 공손관련 상황

지금까지 살펴본 공손표현에서 나타난 미국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으로서 한국어에서 상급자 우선의 사회적 단면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적하였다. 비언어적 상황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공손표현과 매우 유사한 상급자 우선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경우를 논의하고자 한다. 소개될 내용은 선물문화와 팁관행으로서 넓게 보아 공손행위에 속하는 범주라 하겠다.

1) 선물문화

미국문화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방식은 대칭적이다. 회사와 같은 공식적인 관계에서 상사에게 하는 일방적인 선물은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지며, 뇌물로 오해된다.⁴⁾ 반면 한국문화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자에게 향하는 상향성이 특징적이다. 명절선물과 인사라는 명목으로 하는 선물행위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하급자가 상대적 여유를 누리는 상급자에게 하는 행위다. 부하직원이 직장상사에게 추석선물을 하고, 거래처에서 발주처 담당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 종종 선물구입에 지출한 비용이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와 비례한다고 여기는 상급자가 쓴 선물을 받고 모욕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과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되고 가게를 꾸려나가야 하는 가장에게는 선물구입이 커다란 명절 스트레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학교 환경에서는 스승의 날 선물이 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은 부모님이 마련한 선물을 선생님께 드린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승의 날 선물이 사라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수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는다.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이 대학이라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

4) About.com에서는 적절한 선물비용으로 \$10-25을 추천하며, 절대로 \$50은 넘기지 말도록 조언한다.

이다. 예외적으로 대학에서 선물이 존재하는 전공이 예체능 분야인데, 선물이 존재하는 분야가 취업 등에서 교수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하는 분야와 일치한다. 안식년을 마치고 온 교수가 학장에게 귀국인사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학장이 평교수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위에 나열한 선물 행위는 일관되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하는 비대칭적 관계이다. 소위 윗이 갑에게 하는 행위다. 예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장이 이사들에게 연말선물을 하거나 사원에게 조의금을 전달한다. 이 경우는 통상적 선물과 두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단 이사들 혹은 사원들 전체에게 하는 공식적인 선물이고, 둘째로 하급자가 하는 선물은 사비로 충당하는 것이지만 상급자의 선물은 회사 공금을 사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명절선물, 스승의 날 선물, 귀국선물 등은 동등한 개인 간의 순수한 관계가 아니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상납하는 뇌물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선물행위는 댓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이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상급자를 기쁘게 하거나 밉보이지 않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면 위의 사실들이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된다.

2) 팁 문화

팁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베푸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대칭적이고 하향적이다. 미국문화에는 팁이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문화에는 팁 관행이 없다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상급자 우선적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현상이다. 재화를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는 상급자로서 응답 받아야 하는 대가로서 당연시 된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로서 팁은 상급자 우선성과 충돌하는 개념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머지 행동양식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

한국 사회에서 ‘팁’이라는 명칭으로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관찰되기도 한다. 고급 식당이나 술집, 혹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제공하는 팁이 있다. 물론 노래방 도우미에게 제공되는 사전에 약속된 금액의 ‘팁’은 미국식 팁이

아니다. 계약관계에 의해 지출하는 ‘봉사료’이다. 고급 음식점, 술집, 일식집 등에서 도우미 혹은 주방장에게 약속되지 않은 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차이점이 있다. 미국식 팁은 서비스 이후에 이에 대한 답례로서 제공하는 반면, 한국식 팁은 사전 혹은 서비스 중간에 제공하여 높은 서비스를 부탁하는 일종의 ‘뇌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물문화의 비대칭적 상호성과 진정한 의미의 팁 문화의 부재는 한국사회의 상급자 우선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III. 아부에 대한 인식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뇌리에 남아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있다. 교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칠판에는 전 수업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잔뜩 남아 있다. 한 학생이 앞으로 걸어 나가서 지우개로 칠판을 닦기 시작한다. 교수가 등장한다. 학생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말한다. 학생은 칠판 지우는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계속한다. 교수가 버럭 고함을 친다, “그만 하라고!” 학생이 울그락 불그락하는 교수의 성난 얼굴을 황당해 하며 바라본다.

이상은 1980년대 말 미국 대학원 강의실에서 미국 교수와 1년차 한국 유학생 사이에 발생한 실화다.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극단적인 일화라고 하겠다. 위 사례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특정 행동에 대한 문화적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이며 이 차이의 근저에는 ‘아부’에 대한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개념적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학생의 입장에서 칠판을 닦는 행위는 교수의 수고에 대한 보답 내지 성의표시로서 학생으로서 스승에게 응당 할 수 있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음에 반해, 이 행위를 받아들이는 미국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부’였으며, 특히 많은 학생들 앞에서 노골적인 아부를 받는 것에 대해 민망

하게 느끼고 있는데다가 그만두라고 지시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를 무시한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본 절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난 아부에 관한 두 문화 간의 충돌을 코퍼스 언어자료를 중심으로 밝혀 나가고자 한다.

1. 한국어에 나타난 ‘아부’

아래 (9)는 ‘아부’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의 사전적 정의를 소개한 것이다. 유사어로서 ‘아침’은 상대적으로 문어성이 높아 고어체 등에 더 널리 쓰이는 것을 제외하면 의미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맥락에서 병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일 문단에서 번갈아 교체 사용되기도 한다.

(9) 아부: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

“약점을 가진 자는 강한 자에게 아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 이상문, 『황색인』

아침: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 알랑거리는 것

“정론을 피하고 더욱 아침하는 글을 써야하는 자기의 비굴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태영은 정체 모를 공포에 사로잡혔다.”

- 이병주, 『지리산』

이한우는 『아부의 즐거움』에서 ‘아부’의 ‘아(阿)’는 ‘언덕’을 의미하고, ‘부(附)’는 ‘기대다’의 뜻이라는 한자어 어원을 근거로 아부를 ‘언덕에 기대다’, ‘주군에게 의탁하다’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아침을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거리다’라는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을 시도하였으나, 현재의 공시적 사용을 고찰할 때 동의어로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며 ‘아부’가 더욱 흔히 사용되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1세기 세종계획에서 2011년 12월에 배포한 세종말뭉치 중에서 원시말뭉치 형태의 현대문어와 현대구어이다. 코퍼스 검색프로그램은 한마투 2.0이 사용되었다. 먼저 200개의 파일로 구성된 현대구어에서는 ‘아부’와 ‘아침’이 전혀 검색되

지 않았다. 반면 1294개의 파일, 1,551,861 문장으로 구성된 현대문어에서 각각 15, 17개 맥락에서 해당 어휘가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아부’와 ‘아침’이 하나의 굳어진 어절처럼 병렬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래 (10)-(12)와 같이 세 차례 발견되었다. 비교적 오래된 문체의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 (10) 한쪽에서는 환자의 약을 구하라고 호통치지만 관권과 직권이 있는 자는 병원의 '진료과'에서 '간부치료' 의사의 아부 아침에 호의호식하면서 고급약을 쓰고 만포식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 돈 없는 자와 직권 관권없는 자의 모순 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11) 전조 고려 적에는 부처님의 상(像)을 들고서 탐욕스런 승려들이 왕족과 권문 세도가의 발밑에 엎드려 아부 아침하면서 기름지게 하였었다.
- (12)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교감으로 있다가는 앞으로 교장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머리를 썩여 가면서, 아부 아침하는 것들, 부정부패로 살아가는 것들을 눈감아 주면서 구역질나는 생활을 해야 할 테니까 말이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 행위에 대하여 ‘아침’과 ‘아부’로 서술한 경우가 1회 검색되었다. 비교적 최근 텍스트인 1990년대 초의 자료이다.

- (13) 한 인사의 칠순잔치에서 중앙 일간지 편집국장·주필·발행인을 거친 언론인 입에서 나온 ‘당당한 아침’이다. 노태우 정권 말기였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내로라하는 언론인이 듣기 민망한 아부를 공개석상에서 한 것일까.

이를 바탕으로 ‘아침’은 ‘아부’의 동의어로 판단할 수 있다. 위에 나타난 아부에 대한 내용 기능적 측면은 분석하자면 다음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 (14) a. 집단 전체보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b. 비난받을 만한 부정적인 행위

물론 (14a)에서 개인적 이득만을 취하는 행위라는 데서 논리적으로 (14b)의 비난받는 부정적인 행위로 연결이 된다. 또한 위에 제시한 자료와 추가로 아래 (15)-(17)의 예에서 ‘아부’의 형태적 특성을 고찰해 보면 아부는 (i) 말로 하는 언어행위이며; (ii) 방향이 일관되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향하는 행위라는 특징이 발견된다.

- (15) 포송룡은 당시의 사대부들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현실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패가 만연하던 당시의 과거 제도아래선 꿈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아부 대신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즉시 기록해두곤 ‘요재지이’의 창작에 몰두했다.
- (16)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하들로부터 아부받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모두 내쫓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무리로 도당을 만든다. 아부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회사는 곧 망한다.
- (17) 아직 그대로 입고 있는 밤빛 양복을 화려르 벗어 던졌다. 잠옷으로 바꾸어 입을까 하다가 그냥 응접실로 나갔다. 조금 전에 몰려왔다가 간 손님들이 들어다 놓은 선물상자들이 응접실 한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들이 굶질거리면서 흘려 놓은 아부 섞인 웃음들이, 그대로 그 선물 상자들에 영기어 남아 있는 듯했다.

전체 코퍼스에서 ‘아부’, ‘아침’으로 검색된 32개 맥락 총 39개 어휘 환경은 모두 언어행위에 대한 서술이자 하급자가 상급자에 행하는 상향적 행위로 나타났다: (16)에서와 같이 “부하들로부터 아부받”는 것이며,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권력에 아부”한다.

아부는 한국사회에 깊이 스며든 언어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는 땃땃하지 못한 행위로 공문의 장에 등장하지 못했었다. 아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이 또한 미국에서 발행된 *A Brief History of Flattery* (Stengel, 2000)라는 책이 2006년에 『아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이후 이 책이 미국사회에서 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얻고 화제가 되었다. 이 관심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부의 실상이 어느 정도 일반인의 관심사였나를 반증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12년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아부의 왕」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다. 이후로 소위 아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Stengel의 책에 나온 내용을 아부의 기술로 추천한다.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은데, 이들은 한국문화에서 이전에는 아부로 취급하지 않던 내용들이다. 미국 문화에서도 아부로 오해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전략으로서 추천하는 내용이며, 모두 좋은 칭찬으로 여겼던 내용이다.

- (18) 아부의 전략: 『아부의 기술』(425-426)
 - a.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b. 칭찬과 동시에 부탁하지 말라.
 - c. 본인이 없는데서 추켜세워라.

그런 점에서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영어의 *flattery*와도 거리가 있는 개념이며 현재 통용되는 한국어 어휘 ‘아부’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이는 아부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적절한 행동지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 미국영어에서의 ‘flatter’, ‘flattery’

*Flattery*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물론 부정적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과도한 칭찬이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칭찬이다. Merriam-Webster On Line의 정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9) a. the act or practice of flattering
 - b. (i) : something that flatters (ii) : insincere or excessive praise

사전적 정의 자체에서는 한국어의 ‘아부’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차이라면 (19b(i))로 설명한 ‘아부하는 물체’로 물건을 지칭할 수 있다는 가능성여부이다. 분석에 사용한 코퍼스 자료는 1990년도에서 2012년까지의 미국영어자료 4억5천만 단어로 구성된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를 사용하였다. 검색도 이 사이트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동사 형태인 *flatter, flatters, flattered*와 명사 형태인 *flattery, flatteries*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동사 형태로 쓰인 경우는 명사 형태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용례를 보인다. 특히, 능동형 *flatter/flatters*로 쓰인 경우는 (20)과 같이 사진이 실물보다 잘 나왔다거나, 옷이나 소품이 착용자의 신체적 장점을 강조해 주거나 단점을 보정해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무생물 주어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로 한국어의 ‘아부하다’에 존재하지 않는 용례이다.

- (20) a. What did Lucy really look like? If that picture flatters her, what'd she really look like? (COCA 1990 SPOK ABC_PrimeTime)
- b. The Athena's attractively trim fit flatters ladies' curves better than any other rain jacket we tested this year. (COCA 2012 MAG Backpacker)
- c. A just-above-the-shoulder cut flatters all hair textures and face shapes, says Santini. (COCA 2011 MAG Cosmopolitan)

물론 항상 무생물 주어로 옷, 사진 등으로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아래 (21)과 같은 예의 존재로 알 수 있다. 아래 예에서는 *Schadenfreude*라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고소하게 느끼는 감정이 주어로 나타나 자기애를 북돋아 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22)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 특히 여자가 미소 지을 때 당황해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아부’로 표현하고 있다.

- (21) When we see someone mightier than we divested of his dignity, stripped of his pretensions, humiliated in public, we feel comforted by having retained our own dignity, pretensions, good name. Perhaps after all, we conclude, it is just as well that we are not so rich, powerful, beautiful, talented. *Schadenfreude*, in this regard, is an equalizing, leveling, democratizing emotion; it flatters our self-love.

(COCA 2012 MAG TownCountry)

(22) By this stage I was beginning to see what Major Jodrel had warned me about. "It is not my place to flatter you, ma'am."
"No? You are ill at ease in my company, Lieutenant, especially when I smile. That flatters me, too."

(COCA 2012 FIC FantasyScifi)

동사로 검색된 총 2005개의 문장에서 능동형 *flatter/flatters*로 쓰이는 경우가 965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다수가 무생물 주어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3인칭 단수 현재형인 *flatters*의 경우가 총 106개 나타났는데, 사람이 주어로 등장한 경우는 총 11회로서 이 중 10회에서 ‘아부하다’는 의미가 등장한다. 따라서 약 91%의 경우 위에 나열한 예와 같이 ‘사물에 의해 돋보이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사형태 *flattered*가 1040회로 가장 많은 수로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는 단순과거형, 완료로 쓰이는 과거분사형, 수동태로 쓰이는 과거분사형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가 약 88%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70%가 아래 (23)과 같이 비행위에 대한 평가로 사용된다. 직접적인 칭찬이 아니고 어떤 배려나 호의에 대해 ‘기분이 으쓱하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제안한 사안에 대해 곧바로 거절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flattered*로 표현되고 있다.

(23) You should feel flattered that I am taking some time about this.

It is a matter that requires a great deal of consideration. (COCA 2012 FIC Bk:BloodSecret)

반면 명사형 *flattery*는 사진, 옷 등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한국어 ‘아부’와 유사하게 대다수가 언어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형이 총 475회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서 단순지칭을 제외하고 상황에 대한 서술인 경우 언어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약 88%로 나타나고 비언어행위를 *flattery*로 묘사한 경우가 12%로 조사되었다. 여성에

대한 관심을 (24)과 같이 아부로 묘사되기도 한다. 또한 (25)와 같이 연령이 많은 남자와 데이트하는 행위를 아부로 표현하고 있다.

(24) Now my writer's mind runs freely over their history: meetings with friends from the mills; the flattery of his attention; maybe his look that suggested things she wanted-not vulgar things, but intimacies. (COCA 2005 FIC America)

(25) Having said all that, I freely admit that the flattery of crossgenerational flirting can go both ways. I am still young enough to enjoy being mistaken for someone older, and chatting with an older man makes me feel and look older.

(COCA 1999 MAG MensHealth)

죄송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는 ‘비행위’ 자체도 아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처럼 언어행위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행위가 ‘아부’로 규정되는 개념이 한국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26) The house too looked confident, a five-story limestone on a street of its cousins. Cornelia lived on the top floor. No elevator and no concession from her to any difficulty in the ascent. Subtle flattery. The door opened into a small kitchen with a table, oven, fridge and chair. Versailles it wasn't. (COCA 1995 FIC Triquarterly)

영어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언행도 아부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아래 (27)과 같이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치하말씀을 아부로 표현하거나, (28)과 같이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행위도 환심을 사려한다는 의도 때문에 아부로 표현하고 있다.

(27) A little more than a year later, President Clinton brought Barak

together with Arafat at Camp David in an effort to set an overall peace plan. Mr. Clinton opened the Camp David talks with flattery and optimism. Pres-CLINTON: (From 2000) Both Prime Minister Barak and Chairman Arafat have the vision, the knowledge, the experience and the ability and the sheer guts to do what it takes, I think, to reach an agreement and then to take it back to their people and see if they can sell it.

(COCA 2002 SPOK NPR_Sunday)

- (28) They loved me because I agreed that writing should be easy. The deception involved telling the students what they wanted to hear and praising them however much they floundered. At evaluation time, they would be pleased enough by their " success " that they would return the praise. Teaching, in such a light, amounted to flattery. (COCA 2001 MAG Time)

이상에서 파악한 미국영어의 *flatter*, *flattery*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9) a. 일반적으로 부정적 관점
b. 동사가 무생물 주어를 허용함 (부정성 약화됨)
c.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도 사용
d. 상급자는 물론 하급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

3. 차이점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의 ‘아부’와 미국영어에 나타난 *flattery*는 진정성 없는, 피해야할 행동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가진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휘의 사용 상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0) 아부의 사용에 관한 비교

		한국어	미국영어
공통점		부정적 비난의 대상	
차이점	형태	언어행위에 국한	언어 및 비언어 행위
	방향	상향적, 비대칭적	상향 및 하향, 대칭적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아부에 부정적이어서 당연히 이에 대한 비난도 존재하게 마련이다. 차이점이라면 한국문화에서 아부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는 많다. 세종말뭉치 자료에 검색된 다음 (31)을 보자.

(31) 이 같은 사실은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 사보편집실이 15개사업장 2백명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코오롱그룹사원들이 꼽는 꼴불견 동료 1위는 아부 잘하는 사람(25.5%)이었다.

한국문화에서 동료가 상급자에게 아부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모두들 혐오감을 느끼지만, 상급자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상급자로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노골적 아부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지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아부를 통해 특혜를 가져감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동료들의 멸시와 경계 이외에 상급자에게서 받는 아부에 따르는 위험부담은 거의 없다. 이는 아부가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문화에서는 상급자로서 아부를 받는 것에 조심하라는 경구가 자주 등장한다. 단테는 신곡에서 아부를 배설물로 비유하고, 성경에서는 아래 (32)와 같이 아부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전통적으로 서양문화에서 아부에 대한 부정성과 금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32) a. A man who flatters his neighbor spreads a net for his feet.
 잠언 29:5
 b. A lying tongue hates its victims, and a flattering mouth works

ruin. 잠언 26:28

c. He that loves to be flattered is worthy of the flatterer.

William Shakespeare, *Timon of Athens*

d. flattery's the food of fools. Jonathan Swift, *Cadenus and Vanessa*

서양에서는 비난받지 않으려면 아부행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형편이다. 상급자가 아부를 수용함에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부 행위자의 행동도 이에 비례하여 위축되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클 경우는 특히 이런 경향이 뚜렷해진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공급을 차단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책이라는 점에서 미국 문화에서 아부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 아부의 수용 위험도와 노골성 차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 수용 위험도와 아부의 노골성 차이 비교

	수용 위험도	노골성
한국어	낮다 =>	노골적이다
미국영어	높다 =>	조심스럽다

지금까지의 아부에 대한 미국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난 차이를 비교하면 한국사회가 상급자 우선적 사회라는 점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아무런 대가없이 아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대가성이 아부의 정의에서 핵심적 부분이다. 미국문화에서는 하급자도 아부의 대상이다. 또한 한국문화와 달리 아부의 수용자에 대한 비난이 높다. 반면 한국문화에서는 아부는 상급자에게 하는 행위이고, 상급자의 아부수용에 대한 비난도 높지 않다. 또한 선물행위를 비롯한 비언어행위는 아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상급자는 비난의 우려없이 노골적 아부를 즐기고, 선물행위의 수혜자가 되며 하급자에게 하는 것은 아부가 아닌 ‘덕담’이기 때문에 전혀 비난받지 않고 과한 칭찬을 사용하여 상대를 조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급자는 아부의 비난과 부담으로부터 면제되면서 실질적 용역과 재

화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아부의 수혜를 통해 감정적 이득도 가져간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앞에 소개한 에피소드에서 불쌍한 한국 학생은 수고하는 교수에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성의를 표시했으나, 아부 행위에 대해 조심스러운 미국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 행동은 노골적 아부였으며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공손표현, 권력과 친밀도, 호칭 체계, 선물 및 팁 문화의 관행, 아부에 대한 관점에 대한 미국영어와 한국어에 반영된 각각의 문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한국사회에 상급자 우선, 상급자 위주의 질서가 매우 공고히 자리잡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상급자에게 의무를 주로 요구하는 긍정적 공손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하급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정적 공손성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상급자가 지위/권력을 포기하고 하급자와 동등한 사회적 수준으로 내려오는 미국사회에 달리 한국사회에서 상급자는 지위/권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하급자와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관계가 진행되는 관행을 관찰하였으며, 이 경우 하급자의 일방적 희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부에 대한 개념과 태도에서도 두 언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문화에서는 언어행위는 물론 비언어적 행위도 아부의 범주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아부가 상급자, 하급자 양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심스럽게 때문에 노골적인 아부는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문화에서의 아부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언어행위에 국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개념이다. 수용자에 대한 비난이 적어 상급자가 아부를 받아 들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수용자로부터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나 거부가 없기 노골적 아부가

거리낌 없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급자에 대한 것은 ‘아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자는 의도적이고 지나친 칭찬으로 하급자를 조종할 수 있으며, 아부의 수용으로 감정적, 실리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미국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아부’행위로 간주될 명절선물 등의 비언어적 행위는 아부가 아닌 미풍양속적 성의표시 혹은 어른에 대한 예의바른 인사로서 전혀 문제의식 없이 받아 들이게 된다.

또한 공손표현과 밀접한 비언어적 행위인 선물관행 및 팁 문화에서도 상급자 우선의 문화가 깊이 정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명절선물은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하급자가 더 여유있는 상급자에게 한다는 점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상황인 팁 관행은 한국사회에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급자 위주의 문화적 경향이 팽배하다는 사실이 언어현상과 비언어현상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권위주의적 사회에 편안함을 느끼고 이를 회귀하거나, 적어도 안주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비권위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해소되어 이후에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했다기보다 어찌면 비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래 (34)는 최근의 한 신문 제목으로 등장하였다.

(34) “한국은 독재해야 합니다” - 박정희 추모예배 열려

또한 최근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하급자가 상급자의 증언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하여 ‘항명’으로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것이 용인되는 실정이다. 심지어 아래 (35)와 같이 언론에서도 이를 ‘항명사태’로 정의하고 있다.

(35)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여야 정치권은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의혹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에는 국정원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 지청장과 지휘, 감독권자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요. 국감장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

의 공개 항명 사태와 이로 인한 후폭풍, 충남대 김종래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TV 조선 뉴스7, 2013년 10월 23일)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가 매우 상급자 우선적이며, 권위적 정권을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엄존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재 민주적 의식 수준은 과대평가된 환상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그만큼 정치, 사회적으로 봉건적 전근대성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이한우, 『아부의 즐거움』, Human & Books, 2007.

리처드 스텐걸, 『아부의 기술』, 임정근 역, 참술, 2006. *A Brief History of Flattery*, 2000.

BROWN, Penelope &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BROWN, Roger, & Albert GILMAN,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Sebeok, T. A. (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253-76, 1960.

GOFFMAN, Erving,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Anchor Books, 1967.

HIJIRIDA, Kyoko & Ho-min SOHN, Commonality and Relativity in Address-Reference Term Usages, *Language Research* 19.2: 139-68, 1983.

HUDSON, R.A, *Socio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LEE, Kiri & Young-mee Yu CHO, Beyond 'power and solidarity', *Korean Linguistics* 15:1, 73-100, 2013.

HWANG, Shin Ja J.,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tudies* 1.2: 117-134, 1991.

코퍼스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1.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 ABSTRACT

Cultural Differences in Politeness and Notion of Flattery

Yoon, Jae-Hak

This paper looks into several aspects of linguistic behaviors attested in Korean and American English corpora. A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areas of politeness phenomena, terms of address, power and solidarity, practice of flattery, and closely-related non-linguistic behaviors such as tipping and gift-giving conventions.

An analysis of the data reveals that Korean society remains very much superior-oriented, non-egalitarian, non-democratic despite the pride and sense of accomplishment among the populace that the nation has achieved a satisfactory level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acts in Korean and the Korean society are exposed by an examination of the data:

- There is a notional gap of positive politeness
- Superiors enjoy an unfair advantage in the power and solidarity system
- The terms of address system is set up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evels and the terms of address, in turn, dictate norms of expected behavior
- The notion and practice of flattery heavily favors superiors
- Non-linguistic acts of gift-giving and tipping are consistent with the examined social interactions

As a result, all the benefits, emotional as well as material, are garnered by superiors. These facts may reflect the real Korea that people are used to being comfortable with, a pre-modern, feudalistic society, something akin to its kin in the north. We may proclaim that we aspire to a more democratic society. However, it appears Koreans, deep inside, may have been seeking a powerful dictator all along.

These findings help provide a partial but insightful clue to the political puzzle: why Koreans grew uncomfortable with an egalitarian and democratic president and could not save him, but instead replaced him with a succession of a corrupted businessman and the authoritarian daughter of a former dictator. The flight to democracy has stalled in midair, not quite making the grade yet. There is plenty of linguistic evidence in Korean.

Key Words

공손표현, 권력과 연대감, 호칭 체계, 아부, 선물과 팁 관행

politeness phenomena, power and solidarity, terms of address, flattery, tipping practice

논문접수일: 2013. 11. 08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